

“주제만큼 중요한 것은 표현 기술과 재료”

영국 팝아티스트 줄리안 오피 개인전... 국제갤러리 내달 23일까지

유명 팝아트 작가인 영국의 줄리안 오피(56)가 2009년에 이어 신작을 중심으로 국내 두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현대인의 걷는 모습을 LED 패널, ‘비닐 회화’로 담아낸 대표작은 물론 조각, 초상화 등이 출품됐다. 그의 대표작은 극도로 단순화시킨 인물, 검고 굵은 윤곽선,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로 일러스트나 광고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휘어잡는다. 그의 비닐 회화는 걸어가는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화면 위에 물감 대신 다양한 색깔의 비닐테이프를 붙여 완성된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질의 흔적이 아니라 테이프 흔적들이 드러난다.

작가는 “주제만큼 중요한 것이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나 기술이 있

는지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물감은 새롭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표현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관객이 비닐, LED 같은 새로운 재료에 관심을 가지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예술인지, 순수예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슨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사람들을 담은 작품도 있다. 사진가가 서울 신사동, 사당동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 3000여컷 중 작가가 “인물의 어떤 한순간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편집해 작업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주로 검은색·회색 옷을 입어 우중충하고 그림자가 많은 런던 사람들과 달



줄리안 오피의 작품전 전시 전경.

국제갤러리 제공

리 서울은 그림자가 없고 옷 색깔이 다양하며 모자 등 액세서리가 많다”며 “다들 옷을 잘 입고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차림새여서 마치 비주얼 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였다”고 밝혔다.

작가는 “전시는 작가의 많은 작품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의 다양한 작품과 작업 배경을 통해 작업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3월23일까지. (02) 735-8449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